

책과 문화가 찾아간다… 강진군 ‘인생e음’ 성료

무안군, 폭염 취약계층 건
물관리 강화

강진군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독서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2026년 인생e음’ 상반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생e음’은 청소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책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반기 마지막 제6회 공연은 목리 여성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는 송여심 강진군도서관장도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인형극을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인형극 ‘목민심서, 백성을 살린다’는 정약용

의 대표 저서 ‘목민심서’에 담긴 청렴과 애민 정신을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한 작품이다. 친숙한 인형극 형식을 통해 역사와 책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상반기 ‘인생e음’ 공연은 성전중학교, 병영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작천중학교, 강진읍 평동마을회관, 목리 여성경로당 등 6개 기관과 마을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됐다. 이야기 할머니의 책 읽기, 하모니카 연주, 미술, 트로트 공연, 인형극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학생과 지역 주민 140여 명이 참여해 책과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 시간을 함께했다.

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누구나 일상에서 책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운재 기자



인생e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폭염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응급조치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대상자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와 냉방기기 사용 여부, 충분한 수분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조치법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주요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기온과 폭염특보 확인 ▲갈증이 없어도 물 자주 마시기 ▲가벼운 옷차림과 햇볕 차단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 ▲실내 환기와 냉방기기 적절히 사용하기 등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목포역 장기 체류자 대응 강화



목포시가 목포역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희)는 최근 목포역 내 장시간 체류자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최근 목포역 현장을 찾아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과 안전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장시간 체류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목포역, 역전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회의를 열어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 안전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농업인 안전 챙기기 나서…온열질환 대응 ‘앞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가 연이은 폭염에 대비해 영농철 일제출장단을 편성, 농업인 안전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6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 일제출장단 9개조 33명을 편성해 폭염 취약지역과 농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병

행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벼농사 관련, 논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콩 등 발작물은 이랑 사이 충분한 관수를 실시해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과수 분야에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을 대상으로 강한 햇볕으

로 발생하는 일소(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정 토양 수분 유지와 미세살수, 차광시설 활용 등 재배관리 요령을 안내,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냉방시설 가동으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울릉군, 국도외곽 섬 발전 공동 대응

신안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국도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도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도외곽 면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군청 지상주차장 군민에게 돌려준다

영암군이 군청 지상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면 개편하며 군민에게 돌려줬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암군은 지난 1일 청사 지상주차장 바닥 도색 공사를 마치고 기존 관용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던 주

차면을 모두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직원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민원인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30면이던 민원인 전용 주차면은 지상주차장 76면

전체로 확대됐다. 직원 차량은 지하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장기 방치 차량과 외부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한 안내와 계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은 주차장 개편에 이어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